

나주시 이창동, 민관이 함께 경로당 정리 수납 ‘호평’

오량동 경로당 환경정비 실시



이창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경로당 환경정비 활동 모습

/나주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이창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이창동지사협)와 복지기동대, 정리수납 전문가, 마을주민 등 30여 명은 오량동 경로당 환경정비 및 정리 수납을 실시해 호평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이창동지사협의의 지역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지난달 26일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낡고 오래되거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정리하고 공간을 재배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특히 나주시 평생학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양성된 정리 수납 전문가들이 참여해 어르신들에게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정리 수납 방

법을 교육해 호응을 받았다. 김경선, 나중근 이창동지사협 공동위원장은 “경로당의 오래된 물건들이 공간을 차지해 정리도 못하고 활용도 안 되는 상황이 안타까워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깨끗하게 정리된 싱크대와 냉장고, 넓고 쾌적하게 정돈된 방과 창고를 보며 환하게 웃으시며 좋아하시는 어르신들의 표정을 보고 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창동지사협은 앞으로도 취약계층과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민관이 함께하는 맞춤형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서성택 기자

담양군수직 인수위, 이웃 사랑 실천

담양군, 여름철 폭염 대비 농작물 현장관리 강화

담양군복지재단(이사장 이정옥)은 민선 9기 출범을 앞둔 담양군수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차상준)가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성금 135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새로운 군정의 출발을 기원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고자 마련됐으며, 인수위원과 자문위원 등 총 25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차상준 위원장은 “새로운 담양의 문을 여는 시점에서 위원들이 뜻을 모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힘을 보탬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 출범할 민선9기 담양군정 역시 소외되는 이웃 없이 모두가 행복한 복지 공동체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종연 기자

담양군(군수 정철원)은 본격적인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 기술지도를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군은 벼와 과수, 시설채소 등 주요 농작물을 대상으로 생육 상태를 점검하고, 폭염으로 인한 고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 요령을 농업인들에게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농업기술센터 전문지도사가 영농 현장을 찾아 작물별 맞춤형 재배기술을 제공하고, 관수 관리와 병해충 예찰을 강화해 여름철 농작물 피해를 줄이는 데 힘을 예정이다.

또한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홍보해 농업인 건강 보호에 나선다. /남호경 기자

영광군,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추진

맞춤형 경영 지원으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영광지역 소상공인 점포 전경 사진

/영광군청 제공

아울러 관련 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연계하고, 변화하는 소비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군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지원을 확대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중요한 버팀목”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정책을 발굴해 안정적인 경영과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경영 컨설팅과 판로 확대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영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군은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진기

장성군 “(사)희망을나누는사람들, 따뜻한 기부 실천”

‘희망나눔 장학금 업무협약’ 체결 지역 아동·청소년에 18명 장학금 지원

장성군과 (사)희망을나누는사람들(이하 희망사)이 지난 23일 군청 상황실에서 ‘희망나눔 장학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소득 가정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취약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 목적이 있다.

이날, 희망사는 협약 체결과 함께 장학증서 전달식을 갖고 장성지역 아동·청소년 18명을 장학생으로 선정해 2년간 18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3명의 학생에게는 450만 원 상당의 컴퓨터도 지원했으며 3억 원 상당의 생필품도 군에 전달했다. 생필품은 저소득 가정,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등에 지원될 예정이다.

전달식을 마친 김동우 희망사 부회장은 “장성지역 학생들이 새로운 꿈을 갖고 미래를 향해 도약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희망사의 지



장성군과 (사)희망을나누는사람들이 23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장성군 제공

속적인 나눔 실천이 모두가 행복한 장성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며 “군도 어린이와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2007년 설립된 희망사는 국내 아동, 청소년, 취약주민을 대상으로 장학금 전달, 생활용품 후원, 교육지원사업 추진 등 다양한 분야

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회공익단체다.

군은 앞으로도 민간단체와 협력해 취약계층 지원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복지환경 조성에 힘을 보탬이다. /김재섭 기자

